

늘어나는 환자 언제 꺾이나...4차 감염 발생땐 기약 없어

복지부 “이번주부터 정체·감소할 것” 예상

2차 감염자 1명 17명에 전염...4차 감염 전파력 낙관 못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전체 환자가 6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환자 증가세에도 속도가 붙어 이날 확진자로 새로 발표된 환자의 수가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날 “메르스 유행이

주말을 넘기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근거는 이렇다. 지금까지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첫 환자가 다녀간 평택성모병원과 이곳에서 첫 환자와 접촉한 14번째 환자가 다녀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주로 발생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총 36명, 삼성서울병원에서 총 17명이 감염됐다. 평택성모병원에 첫 환자가 다녀간 때는 지난달 15~17

일이고, 이 환자가 다녀간 후의 3차 감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병원이 자체 폐쇄한 지난달 29일까지가 메르스 바이러스 노출 기간이다. 지난달 15~17일 중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국내 환자의 평균 잠복기가 6.5일 가량을 고려할 때 지난달 22~23일 전후로 가장 많은 평택성모병원 발 환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첫 증상 발현일은 지난달 20~23일에 집중되고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다만, 발생 초기 의심환자 확인과 검사가 지연되고, 첫 환자가 다녀가고 3차 감염자도

발생하면서 이날까지도 평택성모병원 발 환자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는 14번째 환자가 지난달 27~29일 다녀갔다. 여기에 평균 잠복기를 더하면 이달 3~4일에 가장 많은 환자가 증상을 보이고, 증상 발현에서 확진까지 1~3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7일 가장 많은 삼성서울병원 발 환자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두 병원 외에 각각 4명과 3명의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㉔의료기관과 ㉕의료기관도 16번째 환자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기간이 각각 지난달 28~30일과 25~27일이다.

여기에도 평균 잠복기를 반영한다면 두 병원에서 환자가 더 발생한다고 해도 1~2일 내에는 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삼성서울병원에서 4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제3의 진원지가 나오지 않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지 않을 때를 반영한 ‘최상의 시나리오’다. 평택성모병원에서도 3차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3차 감염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2차 감염 못지않게 빠른 전파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빛나갈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3차 감염은 2차 감염보다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염자인 14명 환자는 17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겼다. 그러나 4차 감염의 전파력 역시 낙관할 수 없다. 동선이 발표되지 않은 추가 확진 환자들 가운데에는 증상이 발현된 채로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는 환자가 있을 수 있어 제3, 제4의 진원지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전망대로 주말 이후 환자 증가세가 꺾이려면 삼성서울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4차 감염이나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파라는 최악의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합뉴스



“의심가면 지체없이 오세요” 메르스 환자발생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간 조선대병원에서 관계자가 메르스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진료소는 전남대·조선대·보훈·기독·일곡병원에 설치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5곳 메르스 선별진료소 운영

광주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발생에 대비해 5개 병원 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5개 자치구 보건소에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 공직자들도 유스퀘어, 광주송정역 등에서 시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메르스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정현 광주시장은 조선대병원을 방문하는 등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자치구 관계자, 시의사회, 응급의료센터, 교육청, 경찰청, U대외조직원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22개 보건소와 3개 지방의료원, 24개 지정의료기관 등 총 49개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뢰된 문진 등을 받고 메르스 의심 판정이 나오면 바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옮겨지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서 환자 몰리는 삼성서울병원 환자 급증 메르스 전국 확산 우려 커졌다

전국구 병원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노출, 감염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메르스 동시 다발 우려가 가시화 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메르스 환자 14명 중 10명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35)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64명 중 17명이 이 병원의 3차 감염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다수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첫 환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확산 사태가 우려된다. 삼성서울병원은 ‘빅(Big)4’ 또는 ‘빅(Big)5’로 불리는 전국구 병원이기 때문이다. ‘명의’로 불리는 의료진과의 진료 시기

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만성 질환 환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응급실을 방문,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환자·보호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면 메르스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튀어나올 수 있다.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4번째 환자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단기에 바로 병동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사흘간이나 머물렀다. 응급실에서 사실상 입원이 이뤄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바이러스 노출 규모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전조·온화한 기후 바이러스 생존 유리

한국, 전파력 강한 이유는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똑같은 바이러스인데도 유독 국내에서 더 잘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7일 현재 메르스 환자수 64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환자 수가 많다. 한국보다 환자가 더 많은 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본산’인 사우디아라비아(1019명·450명 사망)와 아랍에미리트(76명·10명 사망)뿐이다. 중동 이외 국가에서는 대개 환자 2~3명 발생에 그쳤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한 변종으로 변이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보건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사우디의 바이러스와 99.82%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바이러스다. 그러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더 잘 전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르스 바이러스를 연구해온 고려대 약대 송대성 교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국내의 기후가 이 바이러스의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인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기온,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바이러스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현재 건조하고 온화한 편인 국내 기후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의 병원 환경도 메르스가 쉽게 퍼진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간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좁은 병실 환경, 여기에 가족 등이 동반하는 병간호·문병 문화가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국민 68% “정부 대책 신뢰 못해”

국민 약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3%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의 39.6%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나머지 5.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광주·전라(73.6%), 부산·경남·울산(70.9%), 경기·인천(70.5%), 서울(67.9%), 대전·충청·세종(63.8%), 대구·경북(59.4%)의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연합뉴스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가 번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축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